



[시장동향] FAO 유제품 지수 연속 하락세

- 식품가격지수는 3.1% 오르며 재반등



지난 8월 FAO의 유제품 가격지수는 116포인트로 전월대비 소폭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년동기대비 여전히 13.6%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오세아니아의 분유 수출 재고는 증가한 반면 수입 수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며 가격지수가 하락한 반면, 치즈는 유럽내 수요 및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 가격지수도 동아시아 지역의 단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유지류 및 곡류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FAO 식품가격지수는 127.4포인트로 전월대비 3.1% 오르며 다시 한 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o.org, 9월 2일자 >

[업계동향] 英 유업체, 비건 단체 시위에 몸살

- 알라푸드에 오는 2025년까지 식물성 대체우유 생산 전환 요구



알라푸드 영국지사가 유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식물성 대체식품 생산을 요구하는 비건 단체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비건 단체가 알라푸드 측에 오는 2025년까지 식물성 대체우유 생산을 전환할 것을 요청하며 유가공장 앞에 바리케이트와 텐트를 설치하고 주변을 봉쇄해 시위를 시작했다.

이 유가공장은 영국내 원유 공급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장으로 매일 150대의 집유차량이 드나들고 있으며, 매년 11억 리터의 원유를 가공하고 있다. 비건 단체는 이 공장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식물성 대체우유 생산 전환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알라푸드는 공공안전 관리를 위해 진압경찰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단체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육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 출처 : foodmanufacture.co.uk, 9월 1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